

## 성장할 시간 고린도전서 3:1-9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제 이름은 빈이고, 윌링던 교회의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 책 또는 전자 성경을 펼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펴시면서, 최근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아내 로라의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도시로 왔을 때 일입니다. 제 아름다운 처제와 그녀의 남편에게는 4세 이하의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과 놀거나 막내를 재울 때, "다시 아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아이들이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생활비를 낼 필요도 없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누군가가 그들을 재워주기까지 합니다. 저도 누가 저를 재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조카들은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느 순간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상황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더 깊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 아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걱정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저귀를 차고 싶지도 않고,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것도 싫습니다. 저는 어른이 된 것이 감사하고, 성숙하게 성장한 것이 고맙습니다.

이제 한 남자로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저는 성장했고 여전히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2.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누십니다.

지난주에 레이 목사님께서서는 고린도전서 2장 6-16절을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선택된 자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지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인간적 지혜가 어떻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1.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강조하거나 밑줄을 그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로 돌아가면, "자연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연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즉 비 그

리스도인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이 두 가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자연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교회에 영향을 미치던 종교적 사상 중 하나는 영지주의(Gnosticism)였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지식"을 뜻하는 *gnosis*에서 유래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소수에게만 계시된 비밀 지식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친 영지주의자들의 주요 신념은 모든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의 몸이나 육체를 악하게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육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학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영혼만 남고 육체는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형태로만 존재했으며, 그분의 인간적인 몸은 우리와 같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육신, 그리고 재림의 물리적인 몸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 같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바울이 "자연적"(2:14에서)이라는 용어를 비기독교적이라는 의미로, "영적"이라는 용어를 기독교적(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충만함)이라는 의미로, "육"이라는 용어를 그 중간 어딘가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1절을 저와 함께 다시 살펴보면 "육신의 사람들"이 "형제"와 "어린이"라는 두 가지 용어로 일찍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용어는 육신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여전히 가족의 일원임을 나타내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들이 영적으로 아직 어린이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성숙한 성인 그리스도인처럼 불려야 하지만 무언가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는 희망은 바울이 성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두 세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 캐나다로 이사 왔을 때 해야 했던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캐나다 운전면허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운전면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등록소에 갔고 그들이 요구한 것은 저의 호주 운전면허증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면허를 교환할 수 있었고, 시험도 보지 않고 바로 캐나다에서 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에서 저는 평생 동안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즉시 바뀌어야 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동시에, 즉 호주처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기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에 대한 사고방식은 두 세계에 한 발씩 걸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성(sex)을 정의하거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분리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길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절로 가봅시다. 몇 가지 강조할 단어들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젓"을 먹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준비되지 않았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젓과 단단한 음식을 서로 대립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둘 중 하나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있어 자연스러운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젓을 먹어야 하듯이, 성인은 자연스럽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영적 성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제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지금 4학년인데, 학교에서 리코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 마리의 장님 쥐(Three Blind Mice)'만 연주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끝도 없이 말이죠. 저는 아직도 리코더를 연주하던 때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재능 있는 딸은 앞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악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그들의 육신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성결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덜 짓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현재의 죄 많은 상태에 대해 매우 절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죄를 덜 짓는 것이 저의 목표였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죄 많은 사람이므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시겠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어보세요.

로마서 8:1-3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1)너를 해방하였음이라
-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판단도, 비난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29-30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남아 있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은 단순히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 죄를 짓느냐 마느냐를 생각하지 않는 완전한 인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17-18

-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 2.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을 주목해 보세요: "무엇", "무엇", "종들", 그리고 "지정된". 여기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17 절로 돌아가면, 바울이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스가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바울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즉 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doulos'로 번역되지 않으며, 오히려 식탁을 섬기는 웨이터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최근에 윌링던 교회에서 일하는 나다니엘에게 저희 가족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고, 그의 카메라 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보았습니다. 렌즈로 가득 찬 가방과 여분의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를 멋지게 보이게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진지하게 말해서, 그의 멋진 사진들을 본 후,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나다니엘의 카메라나 렌즈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표했을까요? 우리는 나다니엘에게 감사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는 유명한 기독교 설교자들, 유명한 기독교 음악가들, 그리고 유명한 기독교 밴드들이 도시로 와서 공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밴드나 설교자를 강조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닌 종에게 너무 쉽게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종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정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종들이 그들의 올바른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종보다 더 큰 존재가 있으며, 그분이 종을 움직이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라고 말하면서, 그 성장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놓쳤을까 봐, 바울은 7절에서 반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시니라"라고 덧붙입니다.

제가 어스틴 하이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가 키 5피트 7인치(170cm)이고, 비에 젖으면 140파운드(63kg)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닌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적어도 6피트(180cm)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175파운드(79kg) 정도의 근육 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저의 민족적 배경이 달랐다면 사역을 포함한 제 삶이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저보다 더 나은 목사님들도 있고, 저보다 더 나은 설교자들도 있으며, 저보다 더 나은 아들, 남편, 아버지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정확히 할당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본 가장 놀라운 생각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저의 계획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스스로 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정된 의무를 다하는 하인들은 주인에게 빛을 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과제를 맡게 됩니다.”  
데이비드 E. 갈랜드 목사 .

저는 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빛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시는가?"입니다.

두 살 된 제 조카는 스스로 신발을 신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와주려 하면, 그는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신발을 신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 적절한 시점에, 제 형수와 마이카가 함께 신발을 신었던 완벽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첫 순간에 그들은 아마 “우리가 해냈다!”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소리치며 "우리가 해냈다!"라고 외칠 만큼 아름답고 기쁜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 3.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누십니다.

8절로 가보면, “심고”, “물 주고”, 그리고 “하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두 가지 독립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분열은 없으며,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인 이유는 우리는 종종 방법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은사를 원하게 됩니다. 심는 사람은 물을 주고 싶어 하고, 물을 주는 사람은 심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배고프다면, 즉 거의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면, 그 음식을 접시에 담아 먹든 컵에 담아 먹든, 냄비에서 바로 먹든 상관없게 됩니다.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5초 규칙”은 이제 “너무 배고파서 상관없어” 규칙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음식이 제공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음식 자체만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방법일 뿐, 식사가 아닙니다. 교회, 이 벽 너머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하루 종일 심을 수 있지만,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볼로가 하루 종일 물을 줄 수 있지만,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심고 물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 나오는 “받다”, “샀을 주다”, “수고”와 같은 중요한 단어들을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금전적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들, 그분의 성령으로 은사를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더 많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가 아니라 노동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성취하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의 영으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동에 근거한 것이지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수를 위해 무엇을 성취하는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일까요? 그의 전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

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을 눈물로 보냈지만, 그의 사역에는 영원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전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은사를 주셨으며, 그 은사들은 여러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미 섬기고 있다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열어주시길 기도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중 고등부, 어린이부, 그리고 Imagine 사역에서 섬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모두가 감독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밭"과 "건물"이라는 용어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교회를 가리키며, 건물로서의 교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사람들로써의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1절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 1 절 = 나, 너희, 사람들, 사람들.
- 2 절 = 나, 너희, 너희.
- 3 절 = 너, 너희, 너희, 인간.
- 4 절 = 하나, 나, 바울, 나, 아볼로, 너희, 인간.
- 5 절 = 아볼로, 바울, 당신.
- 6 절 = 나, 아볼로.
- 7 절 = 하나님, 하나님.
- 8 절 = 하나님, 하나님, 각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과 육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의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아이들이 제 등을 밟고 서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블루이’를 보러 갔는데, 뒤쪽에 있어서 공연을 보기 힘들어했죠. 등이 아직도 아프지만, 사실 저도 아이들만큼 즐거웠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쁨의 기반이 된 그 순간을 즐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로 그분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교회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 죄는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지배하지 않습니다.
-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누십니다.

**묵상 질문:**

1.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미성숙의 징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사역에 더 충실하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 4.